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40. 포르투에서 계속되는 우리의 생일 축하를 위하여

프린트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는 "와아아!" 소리를 지르며 프렌치 도어를 열고 햇빛이 쏟아지고 있는 테라스로 뛰어 나갔다. 우리 '펜트하우스' 방은 호텔 건물의 옥상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포르투 구시가지가 360도 파노라마 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270도로 펼쳐져 있었다. 두 겹고 고풍스러운 돌난간이 둘러져 있는 넓은 테라스에는 하얀 대리석 테이블에 의자가 두 개 놓여 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로부터 눈부신 햇빛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우리는 어린애들처럼(혹은 촌사람들처럼) 기쁨에 넘쳐 웃으면서 테라스를 한 바퀴 빙 돌았다. 오른쪽으로 보면 언덕 위에 클레리구 교회가 보이고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죽 뻗어 있었다. 내리막길 끝 건물 모서리가 바로 포르투갈 정어리의 환상적인 세계' 가게였다. 왼쪽으로 보면 '프라사 데 리베르다지' 자유의 광장이 펼쳐지고 페드루 4세 동상이 바로 보인다. 도로에는 화창한 포르투 오전 햇살 아래 시내 관광버스가 계속 지나가고 있었다. 첫날에는 미처 몰랐는데 높은 곳에서 보니 광장에 있는 건물 위로 여러 대의 크레인 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똑바로 보면 언덕을 향해 오르막길이 이어져 있고 언덕 꼭대기에는 역시 교회 건물이 하나 보였는데 멀리서 보아도 벽에 아즐레주 벽화가 가득한 것이 '성 일테폰소' 교회 같았다. 저 교회도 가보고 싶건만 오늘 하루동안 갈 시간이 있을까? 못 가게 되면 여기 테라스에 서서 이렇게라도 실컷 바라보지 뭐... 그리고 보니 여기가 포르투 구시가지 한가운데로구나...

돌난간에 기대어 이곳저곳 내려다 보고 있는데 '엄마야' 하고 R이 불렀다. 뒤를 돌아보았다. R은 어느새 대리석 테이블에 앉아서 나를 부르르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뭔가 고운 것들이 사뭇히 놓여 있었다. "엄마, 이리 좀 와서 앉아 봐야." 해가 눈부셔서 주근깨가 즐락한 콧등을 살짝 찡

그리며 동그란 얼굴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의자에 앉으며 눈이 둥그래졌다. 윌리엄 모리스 '딸기도둑' 프린트의 리버티 백화점 포장지에 역시 보라색 리버티 백화점 리본이 묶여져 있는 작은 상자. 그리고 그 옆에 '엄마와 그리고 포르투에서 계속되는 우리의 축하를 위해서...' 라고 쓰여진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세상에, 또 생일 선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포르투 생일 선물이지!" R은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 오더니 나를 꼭 끌어안고 "엄마, 또 생일 축하해!" 하면서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아, 정말 내 생일은 1월 내내 계속 되고 있구나! 옛날에는 부모님이 해주시더니 이젠 딸이 해준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틀림없구나.....

작은 상자 안에는 연한 올리브 색 카드지갑이 들어있었다. "엄마, 요새는 이렇게 다 조그만 카드지갑만 들고 다녀. 엄마도 편하게 사용해, 알았지?" 나이 든 엄마에게 항상 최신 유행을 전해주는 예쁜 딸이 다정하게 말한다. 두툼한 장지갑을 가지고 다니던 나는 호기롭게 말했다. "그래, 고마워! 이제 이것만 쓸게! 여기에 카드 든든하게 넣어 가지고 우리 여행 많이 다니자!" 나는 딸의 퐁퐁한 볼에 입맞춰주고 봉투 속 작은 카드를 열어 보았다.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R의 필체로 축하의 말이 카드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엄마! 드디어 우리 포르투갈까지 왔네! 이 카드를 쓰면서 나는 이때쯤 우리들이 그동안 무얼 보고, 무얼 먹고, 무얼 나누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어.....엄마, 엄마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즐든 삶든 눈감작할 새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 매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엄마, 우리 함께하든 홀로 하든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내 마음은 항상 엄마와 함께 할 거야. 앞으로 전진하는 엄마를 언제나 응원하면서. R"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562) 237-8900 OC

Buena Park Nursing Center ★★★★★

부에나 팍 양로병원

-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및 투석관리, 스페셜 통증관리, 튜브영양법, Wound Care, TPN 등
- ▶ Subacute Unit
Respiratory Therap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 서비스 | 재활치료 |
|--|-------------------------------------|
|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 물리치료 (PT) 작업치료 (OT) 언어치료 (ST) |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어: 562-240-3516 www.buenaparknc.com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어바인 Total Care & 임플란트 치과

시니어 스페셜!

65세 이상 메디케어로 받치, 뼈이식등 구강외과 혜택 가능

메디케어 인증 병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로 무절개, 무통증, 빠른 회복, 치과공포 있으신 분 정맥마취로 자면서 치료 가능

James Kim 치과
949.727.0777
 한국어문의 949-702-7811
 113 waterworks way #220
 Irvine, CA 92618

74420 Hwy. 111 Suite 1, Palm Desert, CA 92260
 760.779.5662 (팜스프링 지점)